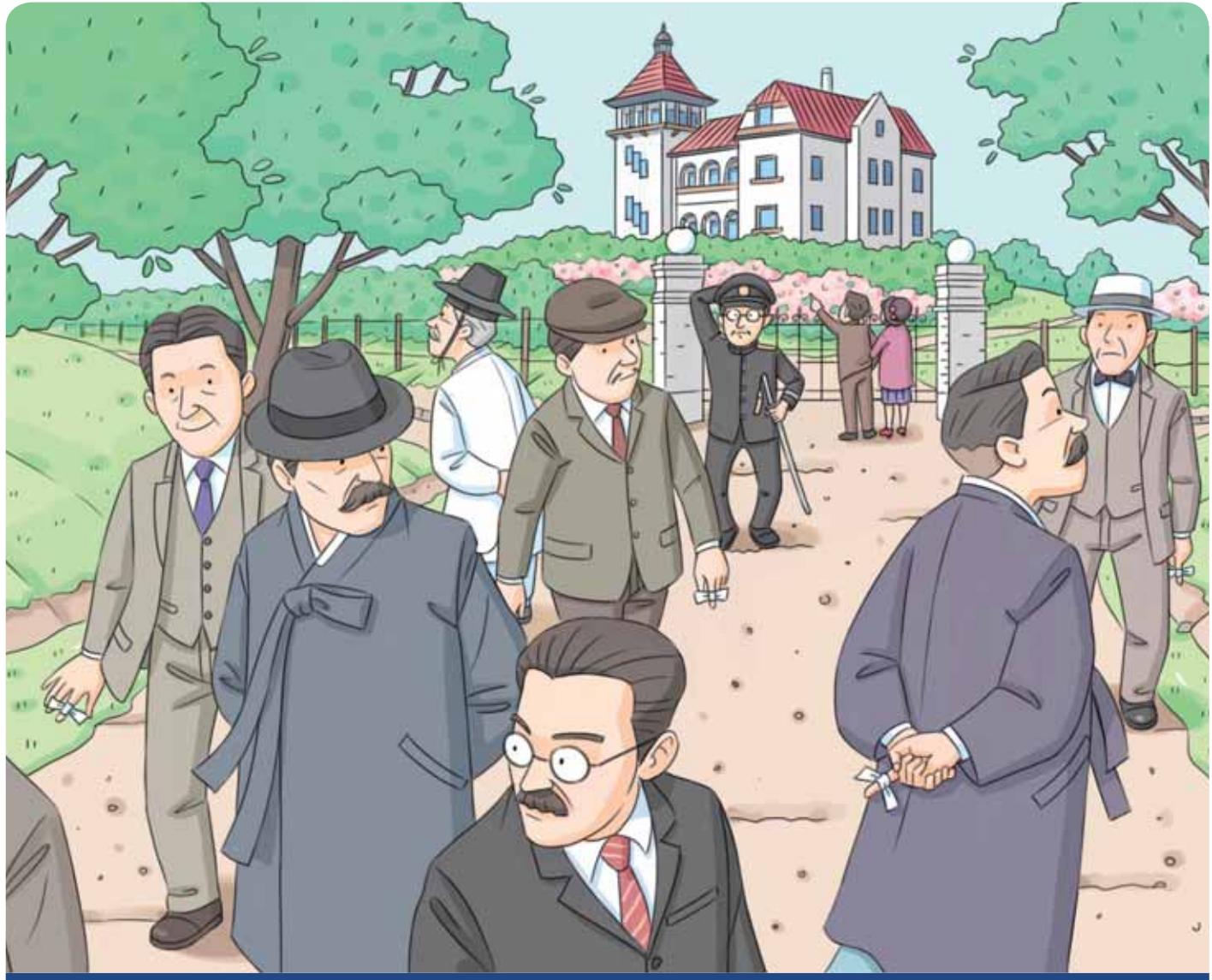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숨은 그림〉 칼, 버선, 물고기, 사과, 30cm자, 깃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운동의 뿌리 ‘만국공원’

조선의 독립을 위해 3·1운동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19년 4월 2일 3시쯤, 만국공원(자유공원)에선 일면식도 없던 이들이 눈길을 주고받았다. 손가락에 흰 종이나 형縠을 감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독립정부를 수립하자며 각 지방에서 모인 독립운동가들이었다. 이 대회는 후일 ‘한성임시정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국내 유일의 독립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던 바탕이 된 곳이 바로 지금의 중구 자유공원이다.



195호 숨은그림찾기 정답

인천 중구 두드림톡

Do Dream Talk
Vol.196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Together, KOREA

3

2019 March

CONTENTS

- 03 똑똑·톡톡
똑똑똑(Knock) 두드리세요.
중구가 답변(Talk) 합니다.
- 04 테마기획
만국공원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기초를 놓다
백범 김구를 알아보다
100주년 기념 문화행사
백범 김구 역사거리 주변 명소
- 20 중구 News
사진으로 보는 중구소식
- 22 동네소식
북성동
- 24 알뜰경제
중구의 사회적경제기업
- 25 환경·건강
홍역 &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보건소 소식
- 26 도서관마당
영종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울목도서관
- 27 문화마당
3월 중구의 문화소식
- 28 든든복지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 30 알짜정보
중구 알찬 생활정보
- 32 숨은그림찾기

인천 중구
두드림톡
Do Dream Talk
Vol.196

발행인 중구청장
편집 홍보체육실
발행일 2019년 2월 25일
주소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관동1가 9)
전화 032-760-7120
팩스 032-760-7129
디자인·인쇄 032디자인(주)

홈페이지 www.icjg.go.kr
페이스북 facebook.com/icjunggu
트위터 twitter.com/icjunggu
인스타그램 instagram.com/incheon.junggu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icjunggu
유튜브 youtube.com/user/icjgtv
네이버블로그 blog.naver.com/icjunggu
네이버포스트 post.naver.com/icjunggu
네이버 TV tv.naver.com/icjgtv
페이스북(영) facebook.com/jungguincheon
웨이보(중) weibo.com/incheonjunggu

인천 중구 현황
2019년 1월말 현재

인구 123,529명
전월대비 1,030명 ▲

세대 58,477명
전월대비 590세대 ▲



포토에세이



겨울을 뒤로하고 출항

연안부두에 서면 웬지 마음이 설렙니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배를 보는 순간,
비로소 여행이 실감 납니다.
바닷가여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3월 햇살이 더욱
따사롭게 변해있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3월.
연안부두에는 이미 겨울을 떨치고
봄을 향해 출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소 연안부두



“똑똑똑 두드리세요” “중구가 답변합니다”

소통하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중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여러분이 원하는
중구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Q 영종에서 초등학생 둘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어린이 돌봄교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여성보육과 여성다문화팀 ☎ 760-7343 /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763-9337

중구는 주민들의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와 가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격 영·유아기 및 초등자녀를 둔 지역 주민 누구나
회원등록 후 이용

이용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위 치 신흥동, 운남동, 운서동

- 신흥동 : 인종로 50번길 28-1, 신선동노인정 2층
- 운남동 : 운중로 14번길 29, 배운경로당 2층
- 운서동 : 영종대로 252번길 12, 205동 110호

프로그램 장난감, 도서이용 및 놀이 공간의 제공, 부모·
자녀간의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을 비롯한
부모교육, 다양한 사회연계프로그램 진행

어린이 돌봄교실은 영종 행복주택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용자격 영종·운서지역 초등학교 1~3학년
20명(단, 양육자의 양육공백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가정만 신청 가능)

이용시간 오후 1시 ~ 8시 까지

장 소 영종대로 252번길 12 행복주택
205동 110호 공동육아나눔터 내

프로그램 다양한 교구놀이, 오감놀이, 교재 및
교구를 이용한 학습지원

Q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또 납부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세무과 시세팀 ☎ 760-7240, 구세팀 ☎ 760-7250

영종지원과 시세팀 ☎ 760-7720, 구세팀 ☎ 760-8820 / 용유지원과 세무팀 ☎ 760-8920

월별로 본 지방세 납부 시기

- | | |
|-----|---|
|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법인지방소득세(9월말 결산) |
|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자동차세 분할납부 |
| 4월 | 법인지방소득세(12월말 결산) |
| 5월 | 개인지방소득세 |
| 6월 | 자동차세(1기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자동차세 분할납부 |
| 7월 | 법인지방소득세(3월말 결산),
지역자원시설세(주택, 선반, 건축물), 지방교육세 |
| 8월 | 주민세(균등분) 납부 |
| 9월 | 지역자원시설세(주택, 토지),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자동차세 분할납부 |
| 10월 | 법인지방소득세(6월말 결산) |
| 12월 | 자동차세(2기분), 자동차세 분할납부 |

납부방법

은행방문 : 납세고지서 납부 및 은행CD,
ATM 이용

세무과 방문 : 모든 신용카드
(일부 법인카드 제외)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

ARS납부서비스 : ☎ 1599-7200
☎ 1661-7200

인터넷

- <http://etax.incheon.go.kr> (인천시 이택스)
- www.wetax.go.kr (위택스)
- www.giro.or.kr (지로)



만국공원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기초를 놓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독립에 대한 의지가 분출되었고, 그것은 3·1운동 이후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민족 내부에서 일어난 자각운동과 함께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 시작은 인천 중구에서였다. 만국공원(지금의 자유공원)에서 13도 대표자회의가 개최되고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 수립이 본격 논의된다. 임시정부는 광복을 맞을 때까지 우리 민족 독립의 실질적인 구심점이었다. 인천에서 시작되었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임시정부 수립 과정과 인천에서 독립의지를 다졌다던 김구 선생의 삶을 돌아본다.

글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강덕우

서울에서 비롯된 1919년의 3·1운동은 전국 각지로 그리고 만주, 연해주, 미주 등 해외 각지로 확산되면서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일경(日警)과 현병들의 강압적 데모 진압과 주모자의 샹출·검거·학살로 인해 날이 갈수록 희생자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국내·외 각지에서는 독립 운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족운동의 최고 지도부로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는 서로 정보교환이 어려웠던 관계로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움직였는데, 3월 17일에는 이미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의회(國民議會)에서 ‘노령정부’(露領政府)가 수립되었다.

1919년 3월 중순 경, 상해에 있던 현순(玄樞, 1880~1968)은 국내의 이규갑에게 ‘국민대회’를 통한 국내에서의 임시정부 수립을 재촉하는 통지를 보냈다. 현순은 1903년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하는 두 번째 하와이 이민팀의 통역자로서, 한국인들을 하와이까지 인솔하며 현지에서 이민자들과 같이 생활했던 인물이다. 또한 3·1 운동 당시에는 국내 거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했고,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해외에서의 대외 연락 및 홍보를 위해 상해로 파견되었다. 그는 이광수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 3월 4일 3·1운동 거사가 중국 신문에 나오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규갑(1887~1970)은 1919년 2월 평양지역 대표로 상경하여 3·1운동 준비에 참여하였다가 수배 중이었는데 현순의 편지를 받고 바로 동지 규합에 나섰고 먼저 정부수립운동을 지원할 ‘중앙대표’로 비밀 독립운동 본부의 홍진 등 5인을 선정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3월 17일 현지 검사 한성오

의 집에 모여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萬國公園, 현 자유공원)에서 대표자 대회를 열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포하기로 결의”하였다. 3·1운동이 절정이던 시기 현직 검사의 자택은 안전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고민하고 희망했던 것은 민족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 각 도 대표들이 민주적으로 결의하면 조선 국민 전체 의견으로 봐도 된다는 생각에서였기 때문에 임시정부 준비위원회는 곧바로 전국 각지에서 민족 대표 25명을 선정했다. 국민대회 장소로 서울이 아닌 인천을 택한 것은 교통의 편리성, 과거 외국 조계들이 밀집했던 ‘만국공원’의 국제적 상징성을 감안한 것이었으며, 총지휘를 맡은 홍진의 선영이 인천인 것도 작용했으리라 추정된다.

4월 2일 “당일 아침 나는 홍진, 권혁채, 안상덕 등과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그때는 3·1운동 뒤 각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던 때라 일본 경찰의 경계가 심했다. 인천역에 내리자 불심검문을 받았는데 홍진은 변호사여서 무사했지만 나는 검색을 당했다. 그러자 홍면희가 ‘이 사람은 약장사로 우리와 일행’이라고 둘러대 가까스로 위기를 면했다.”고 이규갑은 회고하고 있다.

당일 대회는 ‘손가락에 흰 종이나 형겼을 감는 것’으로 표시를 하였는데, 오후 3시쯤 만국공원에 당도한 동지들은 천도교 대표 안상덕, 기독교 대표 박용희·장봉·이규갑, 유교 대표 김규, 불교 대표 이종욱 등과 서울, 강화, 인천, 수원 등지의 대표들로 대략 20명 내외였다. 대표들은 노천에서 다수 집단이 모이기보다는 은밀한 실내에서 모이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어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萬國公園, 현 자유공원)에서 13도 대표자 대회를 열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포하기로 결의”



13도 대표자 회의가 개최된 만국공원(현 자유공원)

떤 음식점의 조용한 방’ 하나를 빌어서 음식을 시켜먹으며 의논하였는데, 그때 토의한 내용의 글자는 “우리가 만든 임시정부를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발표하느냐 그리고 국민대회를 여는데 있어서 인구 동원 문제와 지방조직의 강화문제 등” 이었다.

인천 만국공원의 ‘13도 대표자 대회’는 여전상 13도 대표 전체가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진행되었지만 후일 ‘한성임시정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또한 그 회의가 인천 만국공원에서 개최된 것은 개항 이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축적돼 온 인천지역 민족운동의 열기와 3·1운동으로 분출된 인천지역 항일민족운동의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4월 초에 서울에서 한성정부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중국 상해로 전해졌는데, 상해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모여들던 곳이었다. 상해의 독립지사들도 3월 하순경부터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4월 중순 이규갑과 홍진은 정부 조직표와 조각 명단을 휴대하고 상해로 망명길에 올랐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상해에서도 이광수 등은 독립선언을 하였으니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의사도 듣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부를 조직한다면 미국동포들도, 하와이동포들도, 노령에서도, 서북간도에서도 저마다 정부를 조직하게 될지도 모르니 이리되면 우리 독립운동이 분열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서울에 보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현순’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국내의 임시정부 수립 사실을 알게 된 상해의 독립지사들은 이에 자극되

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의결하고, 각료를 조직하였으며, 전문 10조로 된 임시헌장을 심의 통과시켜 13일 공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内外에 알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규갑, 홍진 등 만국공원 13도 대표자 회의의 주도세력이 상해로 떠난 후, 서울에서는 안상덕·현석칠(玄錫七) 등의 발기로 국민대회를 소집하여 13도 대표가 서울 서린동 봉춘관(逢春館)에서 집회하기로 협의하였고 현석칠·안상덕 등과 학생 김사국(金思國)·장재극(張彩極)·김옥결(金玉玦) 등이 서울에서의 국민대회 개최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날 임시정부 각원을 선거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4월 23일 서울 서린동 봉춘관(逢春館)에서는 24명으로 조직된 전국 13도 대표자 국민회의를 개최하여 한성임시정부의 수립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시민 학생 등과 함께 ‘공화국 만세’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서울 곳곳에 전단을 뿐렸고, 또한 한성임시정부 선포문과 국민대회 취지서, 결의사항, 각원 명단과 파리강화회의 대표, 그리고 6개 조로 된 약법(約法)과 임시정부령 제1·2호를 발표하였다.

한성임시정부는 연합통신(UP)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더욱 선포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서울에서, 그것도 ‘국민대회’라는 국민적 절차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점, 정부 조직과 각료구성에 있어 해외지도자를 총망라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리하여 후일 상해임시정부로의 통합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주역 백범 김구를 알아보다

2019년은 3·1운동과 함께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다. 임시정부의 수립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 동아시아, 세계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백범 김구’는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 조선의 한 청년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민족지사로 변해가는 과정을 만나보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가 물려온다.

글/사진 편집부



중구 내동 월아천과 경인면옥 주변 골목,
이곳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가 기거하며 아들의 옥바라지를 했다.



옛 인천감리서 정문



인천감리서를 탈옥한 청년 김창수는 밤새 달려, 동이 틀 무렵 용동 마루터에 올랐다.

조선의 청년 ／ 김창수

1896년 황해도 치하포, 스물한 살의 청년이 조선인으로 변장한 일본인을 죽이고 체포됐다.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왜놈을 죽였노라”라는 글과 함께 ‘해주백운방기동 김창수(海州白雲坊基洞 金昌洙)’라는 서명까지 남긴 청년의 이름은 ‘김창수’였다. 죽은 일본인은 육군 중위 ‘쓰치다’였고, 김창수는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에서 국모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라고 외치던 김창수는 해주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 인천감리서로 이감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형선고를 받는다. 사형집행 날, 묵묵히 집행을 기다리던 그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집행금지’, 당장 사형집행을 중지하라는 고종황제의 어명이었다. 국모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인을 살해한 청년의 소식을 들은 고종황제가 전화로 사형을 중지시킨 것이다. 사형집행 3일 전 개통된 이 전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거리 전화이자, 역사를 바꾼 통화였다. 사형집행은 중지되었지만, 김창수의 투옥생활은 계속됐다. 인천감리서에서의 생활은 청년 김창수 인생에 전환점이 된다. 그는 무지하여 억울하게 수감 생활하는 조선인들을 만나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김창수는 인천 개항장을 통해 유입된 ‘세계역사·지리’, ‘태서신사’ 등의 신서적을 읽었으며, 인천감리서에 있던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훗날 김창수는 이 시기를 항일운동가로서의 사상을 정립한 시기라고 기록했다.

1898년 3월 김창수는 인천감리서를 탈옥했다.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결단을 내리라 다짐하며, 한 손에 쇠창을 들고 감리서 정문을 당당히 걸어 나왔다.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간 그는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이때 김창수는 동지 유원무의 권유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김구(金龜)’였다.



옛 인천감리서

민족지사

백범 김구

교육 활동을 통해 항일운동을 하던 김구는 독립운동가 안명근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다 검거된 ‘안악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감옥에 다시 투옥됐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구(龜)에서 구(九)로 바꿨다.

1914년 서울에서 옥살이를 하던 김구는 철사로 허리가 뚫여 인천감리서로 이감됐다. ‘무술년(1898) 3월 9일 한밤중에 옥을 깨뜨리고 도주한 이 몸이, 17년 후에 철사에 뚫여서 다시 이곳에 올 줄 누가 알았으랴’ 탈옥했던 곳으로 돌아온 김구는 이렇게 회고했다. 인천에서 다시 옥살이를 시작한 김구는 인천항 축항공사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고된 노역에 힘들었던 김구는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 싶었지만, 자신이 뛰어들면 같이 쇠사슬에 뚫인 죄수들이 함께 떨어져 그럴 수 없었다. ‘아침저녁 쇠사슬로 허리를 매고 공사장으로 출역을 간다. 흙 지게를 등에 지고 10여 길 높은 사다리를 밟고 오르내린다. 불과 반 일 만에 어깨가 붓고 등창이 나고 발이 부어서 운신을 못하게 된다.’ 김구는 고된 노역생활을 백범일지에 상세히 기록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연구원, 인천시역사자료관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축조되었던 인천항 축항 일부(약440m)가 아직도 건재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고난 속 김구는 자신의 호를 ‘백범(白凡)’ [백정(천한 사람)의 백, 범부(무지한 사람)의 범]이라 짓고 자신을 낮추며, 항일운동에 대한 다짐을 굳건히 다져갔다. 출소 후, 농촌부흥운동에 주력하던 김구는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상해로 떠났다. 임시정부의 문지기로 써 달라고 찾아온 김구를 임시정부는 경무국장의 자리를 내줬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을 시작으로 내무총장, 국무총장 대리, 국무령에 취임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다양한 항일운동을 진행했다.

‘인천 축항은
내 피땀이 배어 있는 뜻이다.’



인천 축항 공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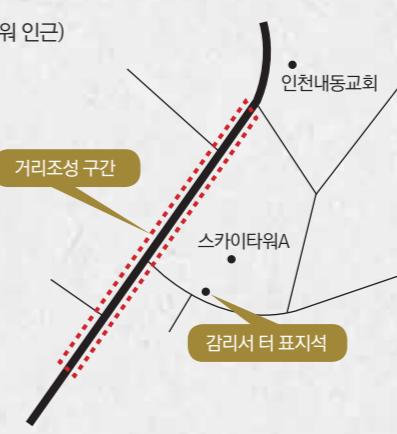
📍 백범 김구 역사거리
사업 대상지


김창수, 김구와 함께
/
기억될 인천

광복 후인 1946년 김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인천’이었다. 두 번의 수감생활, 모진 노역까지 잊고 싶은 기억이 가득 하지만 지금의 김구를 만든 원천이 바로 인천에 있기 때문이었다. 백범일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 중구는 백범 김구의 흔적을 찾아 업적을 기리며, 역사적 가치로서 보존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인천감리서 터였던 신포로 일부구간을 중심으로 축항, 청년 김창수가 탈출했던 경로를 따라 ‘백범 김구 역사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감리서 터 주변 정비로 시작되는 사업은 계단과 담장을 이용한 벽화 및 기념물 조성, 인도 조성을 통한 탈출경로 거리조성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구는 김구가 옥중생활 당시,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곽낙원 여사(김구의 어머니)께서 일을 하셨던 장소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시작한 사업은 항일운동의 중심지로서의 인천을 되새기며,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청년 김창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 백범 김구가 되기까지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국의 근·현대사와 민족지사들의 정신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의 중심에 있는 중구를 마주하게 된다.



영화 대장 김창수

‘인천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뜻이다.
스물두 살에 인천 감옥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스물세 살에 탈옥 도주하였고,
마흔 살에 17년 징역수로
다시 이 감옥에 이수되었다.
저 축항에는 내 피땀이 배어 있으며,
면회하려 부모님이 내왕하시던
길에는 눈물 흐적이 남아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문화행사

중구에서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걸어온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미래 100년을 전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문화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중구민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알찬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행사

1919년 3·1운동 직후인 4월 2일, 13도의 대표들이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 모여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이에 자유공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 기초를 마련한 장소로 할 수 있다. 만세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지역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재조명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3월 1일 금요일에 3·1독립만세기념비(덕교동 768-1) 앞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오프닝 공연에서는 중구의 자랑인 여성합창단이 아리랑과 봄아 오너라를 열창할 예정이며, 크로스오버 팝페라 그룹인 지브로가 뜨거운 열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민들의 다양한 체험과 부대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흥미로운 행사가 기대된다.

일시 3월 1일(금)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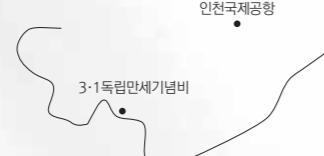
장소 3·1독립만세기념비(덕교동 768-1)

출연진 중구여성합창단

크로스오버 팝페라 그룹 '지브로'

(각각 여러 장르에서 모여 락, 팝, 성악,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컬들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신선한 편곡과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룹)

※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문화행사

1919년 4월 초에 대한임국 임시정부를 결의한 독립운동가들은 그 해 9월 한성임시정부, 노령임시정부 상해임시정부가 상해에서 통합되었다. 훗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로 이어진다. 4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자유공원 일대에서 문화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일시 4월 11일(목) 14:00 장소 자유공원 광장

주요내용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오프닝 공연	14:00~15:00	• 중구 여성합창단, 관내 고등학교 합창단, 클래식 그룹 1팀
기념식	15:00~15:30	• 독립운동유공자 후손 등 표창 • 백범일지 독후감 낭독, 대장 김창수 영화 감상문 낭독
문화공연	15:30~17:30	• 백범 김구 창작 판소리, 대중가수 안치환 등
부대행사	14:00~17:30	• 한성 임시정부 13도 대표자 회의 재현 • 김구 닮은꼴 찾기 대회, 1900년대 초 의상체험 부스 운영 등

연계행사

기간	장소	주요내용
3.1.(금)~5.31.(금)	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	• 100주년 기념 전시회 테이프 커팅식(3.1. 14:30), 독립운동 관련 사진 전시
3월 ~ 8월	영종역사관	• 영종역사관 상반기 작은 전시(용유도의 만세소리展)
4.2.(화)	월디관 대회의실	• 독립운동 관련 학술포럼 (인천지역 독립운동 관련 사업현황과 방향)
3. 1.(금) 4.11.(목)	중구 관내	• 박물관, 전시관, 영종역사관 등 무료관람 운영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4.12.(금)~4.14.(일)	자유공원	• 자유공원 벚꽃축제 100주년 관련 문화공연, 지역예술인 문화예술공연 등
7월 말 ~ 8월 중	중구문화회관	• 기획공연(백범 김구 창작 뮤지컬)



중구여성합창단

JUNGGU

나만 알고 싶은,

너와 즐기고 싶은

중구



백범 김구 역사거리 주변 명소

백범 김구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중구의 역사적인 장소부터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나게 된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카페부터 내 손으로 직접 물건을 만드는 다양한 공방까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추억, 가족 간의 공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백범 김구 역사거리의 주변 명소를 소개한다.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숨은 명소! 더욱더 유명해지기 전에 빨리 가보자.

글/사진 편집부



역사 체험 카페 재즈바



+HISTORY

변하지 않고, 제 자릴 지켜온 중구의 역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한 세기 동안 그저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켜온 중구의 역사가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의 장소로 가보자.

홍예문

1908년 일본 공병대에 의해 준공된 홍예문은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즐겨 찾는 중구의 명물이다. 인천유형문화재로 1900년대 일본의 토목공법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이기도 하다. 홍예문 위쪽 길에 서면 인천항을 비롯한 중구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주소 중구 송학동3가 20

인천내동교회

인천항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지어진 내동교회는 1890년 인천으로 들어온 코르프 주교에 의해 건축된 한국 최초의 성공회 성당이다. 한국전쟁 때 많은 부분이 손실되었지만, 1956년 복원하여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커다란 나무 아래 위치한 작은 벤치는 마음의 안식을 선물한다.

주소 중구 개항로45번길 21-32



내동교회를 설립한 코르페 주교(한국명: 고요한)와
인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설립한 랜디스 박사의 흉상



서담재

1년 내내 전시를 멈추지 않는 갤러리가 사람들을 문화의 세계로 안내한다. 1935년에 건축된 건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작품이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문화감성이 폭발한다. 서담재는 상설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모임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주소 중구 송학로 25-15 ☎ 773-3031

시간 11:00~18:00 / 일, 월요일 휴무



똘레도

뚝딱! 뚝딱! 가죽을 두드리는 소리가 입구에서부터 들린다. 지갑 부터 가방까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가죽공방. 기초반부터 중급반까지 있어 초보자도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손때가 묻을수록 길들여지는 가죽 소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곱은 손이 금손이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해보자.

주소 중구 제물량로 206번길 35 ☎ 010-4200-2721



흑백사진관우리

흘러가는 시간 속 멈춰버린 소중한 추억을 선물 한다. 낯설지만 누군가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흑백사진 한 장, 사진작가의 화려한 말솜씨와 셔터 소리에 추억이 기록된다. 사진을 찍기 전, 소품과 설정은 필수!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사진 한 장에 담아보자.

주소 중구 신포로 27번길 101 ☎ 010-4908-8569

시간 11:00~19:30



바느질언니네

수건, 행주, 생리대, 앞치마 등 소장을 이용한 다양한 소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강화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장은 사용할수록 더욱더 부드러워진다. 서툰 바느질에 손가락을 찔리면 조금 아프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생각하면 기쁨은 배가된다.

주소 중구 신포로 23번길 80



눈으로 보고, 손으로 즐기는 중구의 체험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다양한 공방부터
추억의 사진을 남기는 흑백사진관까지 즐거움 가득한
문화·체험공간을 소개한다.

+EXPERIENCE

+CAFE

향에 한번 분위기에 또 한번 취하는 중구의 카페

개항장의 역사를 간직한 카페부터 유럽풍과 현대식 등 다양한 모습을 간직한 카페들을 찾아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디저트의 유혹에 빠져보자.



작은오븐

유기농 재료만을 가지고 만든 디저트는 달콤함과 함께 건강을 선물한다. 형형색색 다양한 맛을 품고 있는 마카롱은 마음까지 녹인다. 계단을 따라 올라온 2층은 마치, 다락방에 올라온 느낌을 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콤함 선물하고 싶다면 작은오븐으로 가자.

주소 중구 신포로31번길 11 ☎ 773-3632

시간 10:30~20:30



Cafe POT R

1880~90년대(추정) 지어진 일본식 주택을 재건한 카페로, 일본 건축 특유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일본식 정원과 다다미방을 둘러보면 마치 일본을 여행하는 느낌이 든다. 대표 메뉴인 팥빙수와 단팥죽, 카스테라는 한정된 수만 판매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맛볼 수 있다.

주소 중구 신포로27번길 96-2 ☎ 777-8686

시간 11:00~22:00/월요일 휴무



카페사비(Cafe 4B)

카페의 목조 외관은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느낌이다. 핸드메이드 우드접시와 목재로 둘러싸인 인테리어는 편안함과 함께 마음에 안식을 선물한다. 매일 아침 사장님 이 직접 만든 다양한 디저트는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 방금 만든 스콘과 쿠키는 선물용으로도 인기 만점이다.

주소 중구 신포로27번길 93 ☎ 010-6599-2133

시간 10:00~19:00/일요일 휴무



좋은예감

크고, 작은 화분으로 둘러싸인 카페 앞에 서면 마치 숲속 오두막을 찾아온 느낌이다.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두막은 어느 순간 유럽의 저택으로 변한다. 유럽풍의 찻잔과 소품들, 커피 향을 따라가다 보면 유럽의 거리를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주소 중구 제물량로206번길 33 ☎ 763-3800

시간 11:00~22:30/월요일 휴무



문화살롱 花요일

독서모임과 인문학 강의가 진행되는 문학 감성이 넘쳐나는 카페로, 책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책 한 권 들고 잠시 쉬어가기 좋다. 계단 위 복층에 앉아 마시는 커피는 힐링을 선물한다. 문화살롱 花요일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주소 중구 신포로23번길 80 ☎ 762-1003



파랑돌

운영한지 20년이 넘은 카페는 클래식기타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사장님의 직접 운영하며 정규적으로 클래식 기타 공연이 펼쳐진다. 카페 안에 심어져 있는 화분들은 마치 꽃밭에 들어온 느낌을 준다. 선율을 따라 흘러나오는 클래식 기타를 듣고 있으면, 마음의 안식이 찾아온다.

주소 중구 송학로 53 ☎ 761-7829 시간 11:30~22:00

서니구락부

빈티지한 소품이 가득해 볼거리가 넘치는 카페. 서니구락부에 오면 총 3번 놀랜다. 맨 처음 커다란 규모에 놀라고,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가득 찬 감성적 분위기에 놀란다. 마지막으로는 달콤한 디저트 맛에 놀란다. 친구들과 회사 모임 장소로도 좋은 곳이다.

주소 중구 신포로23번길 80 ☎ 761-1250



+CAFE



Wknd Lounge

최근 SNS 상에서 핫한 카페다. 넓은 창을 배경으로 찍는 사진 한컷은 인생샷을 선물 한다.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는 마치 갤러리를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인천항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 하얀건물 Wknd Lounge는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꼭 가보고 싶은 카페다.

주소 중구 송학로 63 ☎ 070-7755-2106
시간 11:00~21:30



SOHO63

주택을 리모델링해 만든 카페는 입구에서부터 그 규모에 놀란다. 2층 테라스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은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운치를 만들어낸다. 소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시시각각 바뀌는 가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고유한 커피를 지켜온 곳이다.

주소 중구 송학로 37 ☎ 070-8600-3143
시간 10:00~21:00



버텀라인

1983년에 생긴 인천 최초의 재즈클럽으로 국내외 다양한 재즈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는 곳이다. 한 쪽 벽면을 가득채운 LP판은 오래된 추억과 감성을 선물한다. 버텀라인 건물은 100년이 넘은 근대 건축물로서 개항기의 역사도 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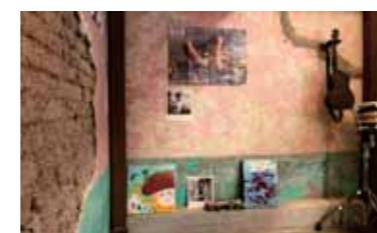
주소 중구 신포로23번길 23 ☎ 766-8211
시간 18:00~01:00/일요일 휴무



인천여관X루비살롱

Back to the 7080! 좁은 골목길 숨어있는 카페를 찾는 재미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느낌이다. 옛 여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인천여관X루비살롱은 70~80년대 레트로 감성을 품고 있다. LP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추억과 향수를, 젊은 층에겐 새로운 추억을 선물한다.

주소 중구 신포로31번길 20 ☎ 070-7757-4712
시간 12:00~21:00/월요일 휴무



바그다드카페

천장이 낮은 작은 공간에서 울리는 재즈는 온 몸 깊숙하게 울림을 준다. LP판부터 CD까지 다양한 종류의 재즈음악이 있어 원하는 곡을 선곡하여 들을 수 있다. 20년이 넘은 재즈카페에서 한 잔의 커피와 즐기는 음악은 옛 정취와 잊었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주소 중구 신포로27번길 83 ☎ 761-9884
시간 14:00~24:00



+JAZZ

추억은 언제나 음악과 흐른다 중구의 음악(재즈바)

선율에 맞춰 흐르는 재즈음악에 저절로 몸이 움직인다. 차 한 잔의 여유와 음악감상,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카페를 소개한다.

JUNG-GU News

중구 소식이 달라집니다. 보기 힘든 글자 대신 ‘사진으로 보는’ 중구소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중구 위험시설물 202개소 국가안전대진단 본격 실시

중구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관내 위험시설물 202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금번 국가안전대진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개 분야 30개 유형별로 나누어 대상시설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시설에 대하여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안전단체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안전신고 기간 운영, 점검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민참여를 통한 안전문화를 정착할 방침이다.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 ☎ 760-7803



정확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영종·용유지역이 영종국제도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영종국제도시’라는 명칭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표지판 정비에 나섰다. 또한 스몸비(스마트폰 + 즈비의 합성어)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중구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원도심 횡단보도 42개소 바닥에 횡단보도 스마트폰 사용 주의를 위한 홍보를 부착한다.

기반시설과 영종시설팀 ☎ 760-8955
교통운수과 교통팀 ☎ 760-7560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위해 조직개편

중구는 지난 1월 31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중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및 한시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전략실·여성 보육과·도시항만재생과를 신설하였다. 관광진흥실 및 항만공항수산과 등 부서 폐지, 부서명이 변경되었다. 행정의 효율성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정원을 개편하였다.

기획감사실 기획팀 ☎ 760-7050

사람 사는 복지중구 경로당-기업·단체 단짝 만들기

경로당 복지 발전과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해 중구는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 총 55개소의 기업체, 기관, 단체와 관내 전체 경로당 77개소가 1:1 자매결연을 하여 연계율 100%를 달성했으며, 정기적인 물품지원,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실시를 통해 어르신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경로당과 기업·단체간 자매결연으로 ‘사람사는 복지중구’라는 중구의 비전을 펼치는데 한발 더 내딛게 되었다.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복지팀 ☎ 760-7325



원도심에 이어 영종국제도시에도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일대 시설이 노후화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통장 회의 시 홍보물을 배포하고 소규모 단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통장들과 주민들을 방문하여 사업취지와 신청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허가민원과 건축팀 ☎ 760-8962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사업 점검으로 방향키 잡아

중구는 원도심 재생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용역과 신흥동 공감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계획 수립용역의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중간보고회를 지난 29일 구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빈집 정비사업과 신흥동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시항만재생과 도시재생팀 ☎ 760-7657



주인 없는 위험간판 대대적 정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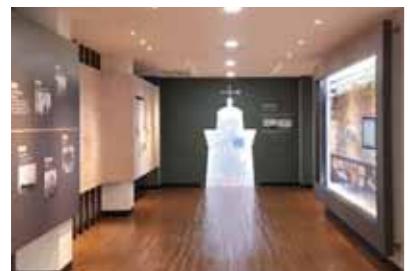
1월 28일부터 업소 폐업, 이전 등의 사유로 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주인 없는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인 없는 위험 간판 정비 사업’은 노후된 간판의 주력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써, 간판 철거 신청을 받은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일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중구청 도시개발과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종·용유지역은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 ☎ 760-7543

월미도의 시간을 담다 어울미센터

북성동

월미도는 참 다양한 매력이 있다. 푸른 바다와 눈부시게 반짝이는 물비늘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여유와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신나는 음악과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월미관광특구, 새로운 세상과 마주친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인천상륙작전을 되새기는 기념비, 한국 이민의 역사를 품고 있는 이민사박물관 등 역사적인 콘텐츠가 가득하다. 이곳에 2019년 3월 월미도의 역사문화를 볼 수 있는 어울미센터가 둉지를 틀었다. 월미도의 옛 명칭은 ‘어울미도’이다. 물이 휙감아 돈다는 의미다. 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자 월미도의 옛 지명인 ‘어울미’를 센터의 이름으로 정했다. 옛 갑문 근로자들의 합숙소였던 이곳은 월미공원 언덕에 방치 돼 있었다. 구는 이를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만들고자 2011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매입했다. 그리고, 월미도의 오래된 역사와 함께 다양한 생태,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테마문화공간 및 월미도(월미공원)를 방문하는 관광객 쉼터로 조성했다.



● 중구 북성동1가 산2-1번지 일원



어울미센터는 2층 규모의 건물 2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A동 1층에는 문학작품 속에 비친 월미도와 인천항, 생태, 평화의 나무 등이 소개된 월미도 홍보관이 자리 잡았고, 2층에는 인천상륙작전 연혁, 전개과정, 주민의 희생 등을 소개한다. B동 1층에는 월미도 역사관이, 2층은 기념품 홍보, 관광객 쉼터로 꾸며졌다. 센터에는 문화역사해설사가 상주하여 생생하고 재밌는 역사를 들을 수 있다.

북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 ①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월미도 환경정화활동
(GS칼텍스, 월미경로당, 월미도번영회 등 참여)
- ② 밥상채워드림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조리한 각종 밑반찬을 취약계층에 지원
- ③ 시원한 여름나기
쪽방주민의 현관 방충망 설치 사업
- ④ 손잡으며 함께해요
분기별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사업



북성동 특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 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총 9개 프로그램
 - 차이나타운에 걸맞은 4가지(왕초보, 초급, 중급, 어린이반)의 수준별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 별 각 10명)
 - 중국어(왕초보, 초급, 중급, 키즈)
 - 차밍댄스, 요가필라테스, 체력단련실
 - 노래교실
 - 서양화
- ② 북카페 운영

재미있게 읽는 우리동네 역사 북성동(선린동)

북성동은 구한말 인천부 부내면 만석리의 일부이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어선이 많이 드나드는 북성포구(浦口; 현 대한제분 위치)가 있었다. 개항 당시 북성포구는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던 외국조계 지역이었는데, 일본인 화방(花房)공사가 이곳으로 처음 상륙하였다고 하여 1914년에는 화방정이라 하였다.

북성동에서 북성포구는 중요한 곳인데, 포구는 육지가 바다로 돌출된 곶(串)에 위치한다. 이런 이유로 ‘북성곶, 북성고지, 북성구지’라고도 불렸다. 바다로 돌출된 곳이기 때문에 해안 경비의 요충이 되어 이곳에 포구가 형성되었고, 또 월미도와 연결하는 제방을 만들 때 북성곶을 기점으로 하였다.

일제강점기까지 화방정으로 불리던 북성동은 광복이 되면서 옛 이름을 되찾았다. 1977년 5월에는 시조례 제1075호에 의해 선린동과 합하였다. 선린동은 개항 후 청국지계 지역으로 이곳을 청관(淸館)이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청관이란 청국조계(租界)를 통칭한 것으로 중국인촌을 뜻한다. 1914년 지나정(支那町)이라 부른 이곳을 1946년 선린동으로 개칭하였다. 중국인들과 유대를 강조하는 뜻에서 지어진 동명이다.

북성동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는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이다. 맛있는 중화요리를 맛보고 근대건축물이 모여 있는 개항장을 둘러보다 보면 북성동의 역사가 몸으로 느껴진다.



영종1동



홀몸어르신에게 따뜻한 떡 케이크 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더불어 행복한 영종1동을 만들기 위해 1월 생신을 맞이한 홀몸 어르신 8가구에 떡 케이크와 부식을 전달했다. 생신을 맞은 홀몸어르신 집에 동 협의체 위원이 직접 방문해 떡 케이크를 드리면서 안부를 묻는 등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드리며, 정서적 지지와 함께 신체적 질환 등의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도 했다.

송월동



희망돌보미 나눔 사업 실시

희망돌보미 나눔 사업은 위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모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격월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전달하는 특화사업이다. 2019년 첫 번째 나눔 사업에서는 복지사각지대 40세대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랑의 손 만두를 전달했다. 2017년부터 시작한 희망돌보미 나눔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깨끗한 설 명절 맞이 위한 민·관 합동 환경미화 실시

기해년 설 명절을 맞아 중구 각 동에서 설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동인천동



영종1동



영종동



율목동



송월동

맛있는 떡국을 주민과 함께 나눔

새해를 맞아 중구 각 동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가졌다. 회원들이 손수 정성껏 준비한 떡국과 다과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며 훈훈한 이웃 사랑과 마음을 나눴다.

연안동



용유동



율목동



중구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해 돈을 버는 기업이지만 그 동기가 사주나 주주의 이익 실현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흔히 사회적기업을 “빵을 팔기 위해(수단)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목적)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농경사회의 계, 두레, 품앗이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모습이라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은 현재의 사회적경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 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주)차이나브이중국어마을

차이나브이중국어마을은 중국 문화 및 중국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단순히 보고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닌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진로체험을 통해 중국 진출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 외 차이나타운 스토리투어, 글로벌 인재양성, 미래 한중 교류전문가 양성, 모국어가 중국어인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한중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 ◎ 중국문화체험
- ◎ 중구 신포로23번길 80, 2층
- ◎ 777-6576
- ◎ <https://chinav.co.kr>



변검 마술공연



중국어로 소원쓰기



차이나타운 스토리투어

얼후연주

중국전통놀이

홍역 & 인플루엔자

개념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감염병임. 최근 국내에서 보고되는 환자들은 대부분 국외에서 감염된 사례

증상

처음에는 감기처럼 콧물, 기침 같은 증상과 결막염 등이 나타나다가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몸통으로 퍼지는 발진이 나타남. 중이염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이 흔히 발생



치료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음.
대다수의 환자가 자연 치유되므로 대증요법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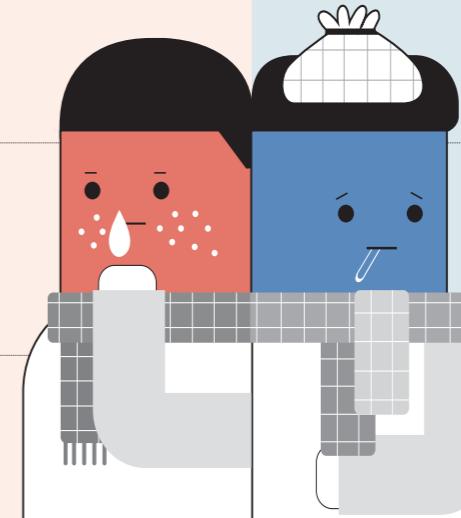
예방



- MMR백신 2회 예방접종을 통해 홍역을 예방
- 소아 :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총 2회)
 - 성인 : 과거 접종기록이 없으면서 해당 감염병에 걸린 적이 없거나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7년 이후 출생자는 적어도 1회 접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여 고열과 함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개념



3월 환절기 건강지킴이 홍역 &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갑작스러운 발열(38°C 이상),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마른기침, 인후통, 코막힘 및 객담.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



치료

안정을 취하고 수분섭취, 필요에 따라 해열진통제 등을 사용하는 대증요법으로 충분히 호전



예방

-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 기침이나 열 등 의심 증상 시 조기에 진료받기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예방접종하기(예방접종 권장시기 : 10~11월)

보건소 소식

유충구제사업 안내

기간 2월 ~ 12월

방법 · 3월~5월 관내 단독주택 등 약 7,000개소 : 전문방역 3개업체 위탁

· 방역 취약지 및 민원접수 지역 : 보건소 방역기동반

문의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760-6052

건강원스톱서비스사업

대상 30세 이상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지역주민

장소 영종용유보건센터 1층

내용 대상자 등록(신체계측, 혈압측정, 생활습관 설문조사 등)

→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 및 건강정보제공

문의 영종용유보건센터 ☎ 760-6815, 6817

운동영양상담실 운영

장소 영종용유보건센터 1층

내용 기초 신체계측, 체성분 검사,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심폐지구력 등 체력측정, 개인별 영양지도 및 운동지도사의 맞춤 운동지도

문의 영종용유보건센터 ☎ 760-6815, 6817

대사증후군 검사

장소 영종용유보건센터 1층 비용 무료

내용 대사증후군 검사(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혈압측정, 복부둘레) 및 상담

※ 주의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금식

접수 반드시 사전예약, 영종용유보건센터 ☎ 760-6816



교육정보

EDUCATION INFORMATION



상반기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일시 3. 16.(토) ~ 24.(일)
 장소 안내데스크 선착순 방문접수
 내용 • 유아 - 꼼지락 꼬마손 독서미술 I, II
 책이랑 음악이랑 I, II
 오색 톡톡! 동화요리 I, II
 초등 - 놀면서 배우는 영어회화
 [아간] 알쏭달쏭 수학나라 I, II
 어린이 한국사 여행
 인물과 함께하는 과학 이야기
 [주말] 언플러그드 코딩
 • 성인 - 우리 가족, 바른 몸 만들기/
 시와 함께하는 캘리그라피
 [아간] 입이 트이는 일본어회화
 Fun English [초급, 중급]
 문의 ☎ 745-6008(담당자 : 이호정)

'토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

일시 토요일 11:00(무료)
 장소 1층 어린이실
 대상 미취학 영·유아(단, 성인 참여 불가하
 며 참여자 보호자만 가능)
 문의 ☎ 745-6011(담당자 : 손명희)



※ 상기 일정 및 내용 등은 도서관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중구의 도서관에서는 구민들이 보고, 듣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DUCATION INFORMATION

1기 문화프로그램

일시 3. 26.(화) ~ 5. 31.(금)
 장소 1층 원화전시코너
 대상 전체
 내용 「유아영어동화」 등 6강좌
 접수 3. 9.(토) 9:00 ~ 마감 시
 1층 안내데스크 선착순 방문 접수
 ※ 3. 12.(화) 정원미달 강좌에 한하여 전화접수
 문의 안내데스크 ☎ 770-3800

윤석애 작가 동양화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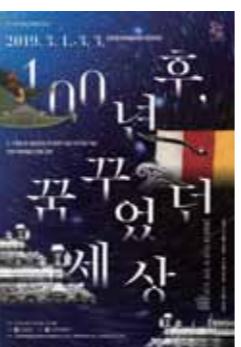
일시 3. 2.(토) ~ 4. 30.(화)
 장소 1층 중앙홀
 대상 전체
 내용 윤석애 작가의 동양화 15점 전시

상반기 정규강좌 운영

일시 3월 ~ 5월
 장소 세미나실1
 대상 유아·초등·성인
 내용 꼬물꼬물 책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7개 운영

와글바글 독후퀴즈 운영

일시 3. 2.(토) ~ 31.(금)
 장소 별관 어린이실
 문의 어린이자료실 ☎ 770-3808



3.1.(금) ~ 3.3.(일)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인천시립예술단 협동공연

일시 3. 1.(금) ~ 3.(일) 15:00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VIP 3만원 / R석 2만원 / S석 1만원
 문의 ☎ 420-2000
 홈페이지 <http://art.incheon.go.kr/app/reserveDay-5/8257>

2.28.(목) ~ 3. 31.(일)

[기획전시]
 3·1절 100주년 기념전시 <잊혀진 흔적>
 기 간 2. 28.(목) ~ 3. 31.(일) 12:00~18:00
 장 소 인천아트플랫폼 B동 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 760-1006



3.1.(금) ~ 3. 31.(일)

배다래작가 초대전
 일시 3. 1.(금) ~ 15.(금)
 11:00~17:00



3.16.(토) ~ 31.(일)

백승기작가 초대전
 일시 3. 16.(토) ~ 31.(일)
 11:00~17:00
 ※매주 월요일 휴무
 장 소 잇다스페이스
 (중구 창의전로 172-41)
 문의 ☎ 010-5786-0777

3

2019 March

금 01 17

02 18

03 19

04 20

05 21

06 22

07 23

08 24

09 25

10 26

11 27

12 28

13 29 금

14 30 토

15 31

16

2.19.(화) ~ 3. 7.(목)
 화교역사관 정식 초대전 <성냥공장 1917> 展 개최

일 시 2. 19.(화) ~ 3. 7.(목)
 장 소 한중문화관 화교역사관 1층 갤러리
 문 의 ☎ 760-7864
 홈페이지 www.hanjung.go.kr

3.29.(금) ~
3.30.(토)
 오페라 <아버지 제르몽>
 (원작: 베르디曲 La Traviata, 각색: 장한섬, 음악감독: 전형진)

일 시 3. 29.(금) ~ 30.(토) 19:30
 장 소 플레이캠퍼스(중구 경동 187-9, 인천기독병원 앞)
 관람료 5만원(12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777-8775

3월 ~ 6. 30.(일)
 한눈에 보는 한국 근대문학사

일 시 3월 ~ 6. 30.(일) 까지
 10:00~18: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다음날)
 장 소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
 홈페이지 <http://lit.ifac.or.kr>
 문 의 ☎ 773-3804



육아도 맞들면 낫다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육아 참 어렵다. 말이라도 하면 들어줄 텐데, 울음과 표정으로 모든 것을 알아채야 한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한다. 처음 하는 엄마 역할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은 기본이고, 가끔은 울고 있는 아이를 따라 나도 같이 울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중구에 가면, 그 어려운 육아를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 중구 공동육아나눔터의 회원들, 그들이 말하는 기다려주는 공동육아를 살펴본다.

글/사진 편집부



공기처럼 소중한 동네 모든 아이들!
육아가 버겁지만 아이만큼은 최고로 사랑하는 부모들!
나누어 고민을 줄이고, 행복은 키워요!
공동육아나눔터에서요. 터 잡고 기다릴까요!



세 살배기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쳤다. 운남동 공동육아나눔터에 들어서자 여덟 명의 아이들이 장난감 트럭을 몰고 길을 만들고, 미끄럼틀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 세 살배기가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스피드로 슬라이딩했다. 몇몇은 소꿉놀이를 하는 듯 앞에 앉은 엄마에게 숟가락을 들어 보인다. 아이들은 신났고, 엄마들은 여유로웠다.

인천중구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부모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놀이, 체험, 학습 등의 다양한 품앗이 육아를 하고 있다. 운남동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놀이품앗이를 진행하고 있는 김현정(이소민 엄마) 씨는 품앗이 육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아이의 안정과 사회성을 꼽았다. “전문가들도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말해요. 혼자서 아이를 보는 것은 힘들지만, 이렇게 모여서 품앗이로 육아를 하면 서로서로 힘이 나요. 더불어 다른 엄마들을 보며 육아 방식을 배우기도 하고,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집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물감놀이, 순두부놀이, 거미줄, 색종이 놀이 등 다양한 오감놀이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수업을 하는 1시간여 동안 정말 엄마들은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리지 않고 모두 눈을 맞춰주고, 스킨십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요리교실, 부모 역할 교육 등 성인품앗이, 가족품앗이 교육도 진행 중이다. 특히 3월 오픈 예정인 운서동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위한 어린이 돌봄교실이 준비 중이다.

평일 13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며 독서와 숙제 관리, 피아노 미술 등 특기 적성까지 고루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비용은 무료이며 맞벌이 가정 우선으로 현재 참여 아동을 모집하고 있다.

중구에는 현재 3곳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 중이다. 두 곳은 영종도 내에 있으며, 한 곳은 신흥동에 위치해 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행복해지는 육아를 위해 오늘도 나눔터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집에서 힘들게 육아를 하고 있는 중구 주민들이라면 누구든, 언제든 공동육아나눔터로 연락을 주면 두 팔 벌려 환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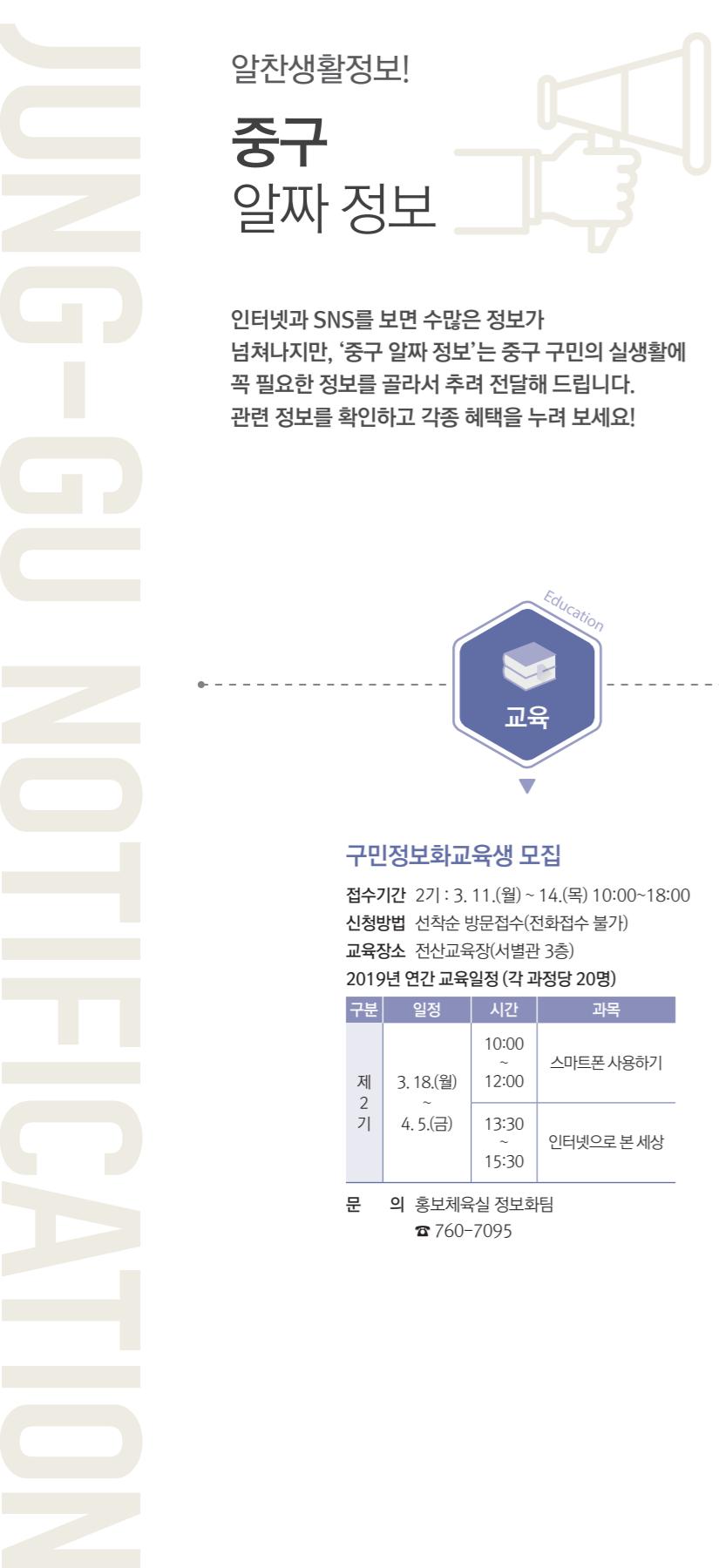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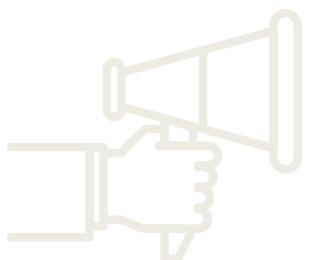
신흥동(인천 중구 인종로50번길 28-1, 신선동노인정 2층 ☎ 330-9570)

운남동(인천 중구 운종로14번길 29, 백운경로당 2층 ☎ 752-2722)

운서동(인천 중구 영종대로252번길 12, 205동 110호 ☎ 763-4822)



알찬생활정보!

중구
알짜 정보

인터넷과 SNS를 보면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중구 알짜 정보'는 중구 구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골라서 추려 전달해 드립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혜택을 누려 보세요!



구민정보화교육생 모집

접수기간 2기 : 3. 11.(월) ~ 14.(목) 10:00~18:00

신청방법 선착순 방문접수(전화접수 불가)

교육장소 전산교육장(서별관 3층)

2019년 연간 교육일정(각 과정당 20명)

구분	일정	시간	과목
제 2 기	3. 18.(월) ~ 4. 5.(금)	10:00 ~ 12:00	스마트폰 사용하기
		13:30 ~ 15:30	인터넷으로 본 세상

문 의 흥보체육실 정보화팀

☎ 760-7095

무인 여성안심택배함 운영

시 간 365일 24시간 연중 운영
대 상 인천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48시간 초과시 요금부과)
장소 및 택배수령지(입력) 주소
① 도원지하보도 : 중구 참외전로 지하 244
② 중 구 청 :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교통운수과
③ 영종복합청사 : 중구 은남서로100 영종동행정복지센터 앞
문 의 ☎ 1899-4711



가스보일러 배기ガス(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법

- 가스보일러는 배기통이 이탈하거나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확인!
- 가스온수기는 환기가 잘되는 외부에 설치!(목욕탕, 화장실 설치 금지)
-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전문가에게!
- 1년 1회 이상 전문가에 안전점검!

문 의 안전관리과 산업안전팀
☎ 760-7389



영종·용유 지역 공영버스 노선 조정 시행

중구 1번과 4번의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조정하여 운북동 지역 어르신 및 학생들의 통학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노선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조정된 노선은 2019년 2월 16일(토)부터 적용됩니다. 중구 공영버스는 6개 노선 9대의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 의 교통지적과 교통지도팀 ☎ 760-7752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www.icg.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소식 → 공지사항 → 검색 [공영버스 노선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안내!

지원대상 슬레이트 주택 건축물 소유자
신청기간 3. 7. 까지
신청장소 위생환경과 환경관리팀 ☎ 760-7392
일반가구 지원범위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미등록 건축물의 경우, 건물 전체의 철거를 전제로 지원 가능·철거계획서 제출 필요/신청서 제출 전 전화문의 필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범위
일반가구의 지원범위 + 지붕개량비 지원
지원규모 지붕 등 면적에 따라 비용 산정, 초과부분은 자부담
• 슬레이트 철거·처리 12동, 지붕개량 3동
•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비 가구 당 최대 3,360천원 지원(공통)
• 지붕개량비가구 당 최대 3,020천원 지원(취약계층)
※ 지붕개량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만 지원 가능
※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는 예비명단으로 편성하여, 사업 진행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안내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지원대상은 소득·재산(일반, 금융)-위기사유기준 외에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함.

지원기준

• 소득기준(단위: 원)

2019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 (중위소득 85%)	1,450,957	2,470,549	3,196,027	3,460,152	4,646,984	5,372,462

• 재산 기준

사업 명	일반재산	금융재산
긴급복지	18,8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	17,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위기사유

1. 주소득자(住所得者)가 사망, 기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로 인하여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문 의 희망의 전화 ☎ 129 또는 복지과 희망복지팀 ☎ 760-6964



침수방지시설(하수역류방지장치 및 물막이 차수판) 무상설치 지원

집중호우 시에 하수역류 등으로 인한 가옥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하·반지하 가구 및 상가등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역지변 및 물막이 차수판)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설치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2019. 3월 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19. 5월 중(가정방문 설치) 설치완료

유 형

1) 역류방지시설(옥내) 설치(1건당 10만원 내외)

- 대상 : 집안 배수설비(욕실, 배란다, 씽크대)로 하수가 역류되는 지하주택
- 규격 : 옥내 배수설비 규격별 설치

2) 물막이(차수)판 설치(1건당 150만원 내외)

- 대상 : 출입구 대문 또는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주택 등
- 규격 : 높이 40~80cm, 스텐레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조립식 수동장치

※ 본 공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설치되며,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은 건물 소유주 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문 의 건설과 하수팀 ☎ 760-7464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안내

신청접수기간 3. 4.(월) ~ 12. 23.(월)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층 자녀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1박 2일 이상의 학교 주관 여행 참가자(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대상자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대상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대상자(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지원횟수 개인별 1회

지원금액 본인 부담 참여 비용 전액

※ 학교 및 교육청 등 감면 시 감면액을 제외한 차액분만 지원

지원방법 개인별(보호자 및 대상자) 계좌입금

신청장소 거주지 등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
-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구비)
- 수학여행비 납부 영수증(해당년도에 참가한 수학여행에 대한 납부 영수증)
-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불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부과대상 부과기준일(2018.12.31.) 현재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

신청기간 2월 ~ 3. 22.

※ 부과대상기간 : 2018. 7. 1. ~ 2019. 6. 30.
(위 기간 내 소유권,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제외)

신청방법 중구청 위생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납부기한 2019. 3. 15. ~ 2019. 4. 1.

납부방법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 카드로 납부

문 의 위생환경과 환경관리팀

☎ 760-7394, 7398

※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은 연2회(3월, 9월) 후불제로 부과되어 폐차나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으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